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5월1일 27홀 개장
예약: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요트타고 대한해협 건너 후쿠오카까지

3일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열린 제19회 아리랑 레이스 요트대회에 참가한 요트들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항까지 110마일을 3일 동안 달리게 되는 이 대회에는 한·중·일 3국 요트 30척이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연합뉴스

야구 열풍 군산 강타

KIA 4년만에 홈 경기… 월명구장 사상 첫 매진

프로야구 열풍이 항구도시 군산을 휩쓸었다.

KIA 타이거즈가 1일 한화 이글스와의 홈 3연전을 위해 군산 월명야구장을 찾았다. 지난 2005년 7월 14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이후 4년 만에 군산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것이다.

오랜만에 프로야구 경기가 개최되면서 군산 월명야구장은 야구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첫 날 경기가 열렸던 1일 야구장 주변은 일찍부터 가족단위의 관람객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경기가 시작된지 2시간 정도가 지나면서 내·외야는 물론 출입구 통로까지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1만1천석이 매진됐다.

1989년 군산 월명야구장에서 야구경기가 개시된 이후 첫 매진이었다.

기존 최다 관중 기록은 지난 1997년 5월18일 해태와 쌍방울과의 경기에서 작성된 9천207명이었다.

모처럼 야구장 나들이에 나선 1만1천 팬들은 4년 만에 찾아온 '귀한 손님'을 위해 파도타기 응원 등을 펼치며 KIA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과시했다.

이날 연장 12회까지 4-4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경기 개시 4시간40분만인 밤11시10분이 돼서야 경기가 끝났지만, 많은 팬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궂은 날씨가 이어진 2일에도 군산 야구팬들의 열기는 멈추지 않았다.

경기가 열리기 전부터 제법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비와 우산으로 무장한 채 속속 관중석을 채웠다.

경기 내내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잠시 경기가 중단 되기도 했지만 야구장을 찾은 팬들의 응원은 멈출 줄 몰랐다.

이날 빗속을 뚫고 경기장을 찾은 이들의 수는 6천406명에 달했다.

3연전의 마지막 경기가 진행된 3일에도 야구장에서 휴일의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두 번째 매진이 기록되는 등 군산은 KIA의 방문으로 들썩였다.

KIA는 오는 8월7일 다시 군산을 찾아 SK 와이번스와의 대결을 갖고, 전북 지역 야구팬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다.

/군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일부터 3일까지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가 열린 군산 월명 야구장에 많은 팬들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KIA 타이거즈 제공〉

댄스·농구… '청소년 클럽 짱' 가린다

광주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140개 클럽 1,400여명 참가… 9일 개막

2009 광주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가 오는 9일부터 열린다.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중·고등부 및 근로청소년(13~19세) 등 140여개 클럽 1천4백여명이 참가해 댄스경연대회·축구·길거리 농구 등 3개 종목에 걸쳐 방과 후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 기회를 주고 방과 후 생활체육 및 클럽활동 등을 통해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개최된다.

주요경기 일정은 '생활체육 댄스 경연대회'가 오는 9일 오후 7시부터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열리고, 길거리 농구대회가 6월21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농구장에서, 그리고 축구대회는 9월26~27일 용산체육공원에서 각각 열린다.

'2009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는 광주지역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062-381-3322) 홈페이지(http : //gwangju.sporta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댄스경연대회에는 20개 클럽 1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비 무료인 이번 경연대회는 최우수선수 1명·우수선수 3명에 시교육감상을 주고 대상 1팀엔 40만원, 우수상 1팀엔 30만원, 화합상·예술상엔 20만원 상당의 상품이 각각 지급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 생활체육 댄스경연대회가 오는 9일 오후 7시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야외무대서 열릴 예정인 광주 생활체육 댄스경연대회에 20개 클럽 1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사진은 지난해 댄스경연대회.

서희경, 생애 첫 메이저 퀸

태영배 女오픈… 6타 차 열세 뒤집고 9언더파 우승

서희경(23·하이트·사진)이 6타 차 열세를 뒤집고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서희경은 3일 경북 경주 디아너스 골프장(파72.6천528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제23회 태영배 한국여자오픈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만 6개를 뽑아 6언더파 66타를 쳐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로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억3천만원.

4월17일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도 마지막 날 8타를 줄여 극적인 역전극을 펼쳤던 서희경은 이번 대회에서도 1위 이보미(21·하이마트)와 6타차를 최종 라운드에서 뒤집었다.

작년까지 국내 최강으로 군림했던 신지애(22·미래에셋)가 갖고 있던 '파이널퀸'의 명성을 이어받은 서희경은 다승 1위(2승), 상금 1위(2억2천355만원) 등 '국내 지존' 자리를 굳힐 태세이다.

전반에 세 타를 줄이며 호시탐탐 선두를 노리던 서희경은 16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그러나 뒤따르던 김보경(23.던롭스릭슨)이 16번홀에서 4m 잡아내며 공동 선두로 따라 붙어 서희경의 우승은 쉽지 않아 보였다.

연장 승부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18번홀(파4)에서 서희경이 웃었다.

서희경이 6m 거리에서 친 내리막 버디 퍼트는 홀로 사라졌다. 두번째샷이 짧게 떨어져 10m 버디 퍼트를 쳐야 했던 김보경은 파에 그쳐 1타 차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김보경은 김영주골프여자오픈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 1타차 2위.

메이저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기대했던 신인 이보미는 14번(파5), 16번홀(파5)에서 1타씩을 잃으며 2오버파 74타를 치는 부진 끝에 3위(7언더파 209타)로 밀렸다.

서희경은 "경기할 때는 집중하느라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떨린다. 우승 생각을 못 했는데 마지막 18번 홀에서 점수를 보고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중간에 퍼트가 잘 안돼 속상했는데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 꿈만 같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양용은 7언더파 9위

퀘일할로 챔피언십 3R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퀘일할로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을 준비하고 있다.

우즈는 3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퀘일할로 골프장(파72·7천442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4개를 곁들여 만족스럽지 못한 2언더파 70타를 적어냈다. 중간합계 9언더파 207타를 친 우즈는 17번홀까지 11언더파를 적어낸 잭 존슨(미국), 10언더파를 친 조지 맥닐(미국)에 이어 공동 3위에 올랐다.

전날 공동 11위에 올랐던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은 무려 6타를 잃고 공동 56위(1오버파 217타)로 밀렸지만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6언더파 66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중간합계 7언더파 209타를 적어내며 공동 9위에 올라 상위권으로 진입했다.

뉴질랜드교포 이진명(19·영어이름 대니 리)도 2타를 줄여 공동 14위(6언더파 210타)로 순위를 끌어올려 만만치 않은 실력을 뽐냈다. /연합뉴스